



해양경찰청 방제선들이 4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기름띠 제거를 위해 소화포를 쏘며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항공취체 협조=여수해경)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예인선 줄도 안걸고 접안 시도”

해수부, 국회 보고... 도선사 규정 무시 예인, 유조선 균형 잃어 충돌 사고

여수 기름 유출

해경 방제매뉴얼 안 지켜
해수부 경보 발령 안해
초기대응 실패 피해 키워

여수 기름 유출 사고를 낸 유조선에 탑승한 도선사가 예인선과 로프가 연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통상 접안 속도보다 빠른 속력으로 접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한 접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을 어겼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4·6면>
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 발표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지역 긴급방제실행 계획에 따른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아 초동 대처에 미흡,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여수 기름유출 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통해 여수 기름 유출 사고 원인으로 “사고 선박 오른쪽에서 예인선 4척이 예인해야 하지만 배 앞머리에 위치한 예인선이 유조선과 예인줄을 연결하지 않은 채 7노트(약 13km/s) 속력으로 접안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안전한 접안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방향타와 속도 조절 등의 역할을 맡는 예인선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수항·광양항 예선 운영 세칙’에는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중 150t 이상은 예인선을 사용해야 하고 16만~19만t급 선박을 예인할 경우 예인 대상 선박 무게의 17% 이상의 마력을 내는 예인선이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선박인 우인산호 무게(16만4169t·원유적재량 27만8584t)를 고려하

면 2만7900마력 이상의 예인선이 예인 작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6대 예인선 중 한 대가 참여하지 못한 만큼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해수부 분석이다.
항만 전문가들은 “예인선은 방향타와 속도 조절 등의 역할을 맡을 뿐 아니라 선박이 정지하면 우측으로 옮겨 선박의 접안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면서 “예인선과 주선박간 로프 결합·이탈에도 도선사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예인선을 사용하는데, 중간에 예인선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동 선박의 균형을 흐트러뜨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사고 선박 도선사는 선박 접안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게 해수부 설명으로, 도선사 ‘실수’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해경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지난 3일 이뤄진 중간 수사 발표에서 제외시켜 의혹을 사고 있다.

해경측의 기름 유출 사고 시 허술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여수해경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내려보낸 ‘여수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에 따른 사고 발생시 행동 매뉴얼, 장비 수급 방법 등을 적용하지 않은 채 방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4일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환경(해양)오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는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도록 했지만, 해수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떠한 위기경보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유명무실한 매뉴얼 시스템을 질타했다.
이에 황 의원은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 것은 크고 작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안일한 인식 때문에 해수부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기름 유출량 642t...해경 추정치 4배”

김영록 의원 주장...해경 초동방제 실패도 질타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여수 원유 유출 추정치가 642톤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지난해 12월31일 발생한 여수항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유출량이 여수해경이 지난 3일 발표한 164톤의 4배에 달하는 642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사고 당일 오전 GS칼텍스 측이 밝힌 유출량 800리터의 무려 802배가 넘는 유출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해경이 중

간발표시 과소된 육상 쪽 송유관 111m부분에서 유출된 기름이 164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해상 쪽 송유관 104m에서도 150톤에 해당하는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GS칼텍스 측은 사고발생 후 1시간 후인 10시30분께 송유관 밸브를 잠갔다 고 밝혔으나 고도차에 의한 유압격차로 인해 당연히 육상 저장탱크에서 유출이 추정되며, 고도차에 의한 유출은 자연상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유출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328톤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기름유출사고

는 오전 9시35분 사고발생시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4시간45분 동안 기름이 유출돼 초동방제뿐만 아니라 방제 관리조차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수항 사고해역 변경 10km이내에는 김·미역 등 해조류양식장과 꼬막·바지락·새조개 등 양식장이 51개소(12km)나 분포돼 있어 어업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형 선박들이 연안을 점유해 영업행위를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업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부담금 징수나 기금 조성 등의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고법원장 방극성 지법원장 장병우

광주가정법원장 김재영...대법, 고위법관 80명 인사

광주고등법원장에 방극성(58·사법연수원 12기) 전주지법원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 장병우(59·14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광주가정법원장에는 김재영(56·18

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57·11기) 특허법원장을, 특허법원장에 강영호(56·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80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박병철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창환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다.
광주고법 부장판사에는 서경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태환 서울북부지



방극성 고법원장 장병우 지법원장 김재영 가정법원장

김재영 광주가정법원장은 해남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가정지원장 등을 거쳤다.
황한식(55·13기) 광주지법원장은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23명이 신규로 보임되거나 교체됐다. 또 이대경 서울동부지법원장 등 법원장 7명이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해 총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이는 2012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른 법원장의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4년 2월호

1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바로보는 도시재생 키워드
근대문화유산
도시재생 키워드

특집

근대문화유산을 주목하라

도시재생 키워드로 떠오르는 근대문화유산

그 가치와 국내외 성공도시 탐구
남도의 근대문화유산 보고를 찾아서

기획
‘만화 하위시대는 옛말’
웹툰은 질주한다

등장 10년만에 콘텐츠계 대세된 웹툰의 힘과 광주웹툰의 가능성 진단

예향 초대석

‘인간이 그리는 무늬’ 강조하는
신안 출신 철학자 최진석에게
삶의 길을 묻다

마주삼은 책과 사람 | ‘우리시대스타PD’ 주철환을 만든 책,
그리고 겸손한 그만의 삶의 철학

이달의 아티스트 | 광주시립교향악단 신임 지휘자 이현세가 꿈꾸는 음악
“마음이 통할 때 흐르는 진짜 음악”

이사람 | 철거위기 문화유산 살려낸
우리문화유산 지킴이 장진수
“남았어도 소중한 건 지켜내야죠”

문화현장 | 2014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3인의 문학이야기
“신춘문예가 끝난 뒤,
문학은 시작된다”

문화 공간 | 청춘들의 발발한 아티스트
‘청춘건강디자인센터’

스타 데이트 | 응답하라 1994의 히로인어 말하는
나의 작품, 나의 연기
고아라에게 성나정은?

문화 동행 | 영덕정 국궁동호회원들에게 듣는
민원 클럽
전통 활쏘기의 매력

우리 땅, 속살 여행 | 물과 물, 완벽한 화음 이론 부안

아트인 리빙 | 소플라티에가 들려주는
수제 초콜릿의 세계

결핍과 상처에서 피어난 예술은
25주기 맞는 ‘한국의 로트렉’ 손상기